

너희는 누구냐?

(사도행전 19:8-20)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성령을 알지 못하던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세 달 동안 방언이나 예언 현상 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으나, 마음이 굳어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집중 가르쳤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결핍은 신비한 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야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하듯, 말씀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킵니다. 바울의 땀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로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도 성경의 초점은 현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사실에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일상에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쉬는 정오 시간에 모여 말씀에 전념했던 에베소 성도들처럼 일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두란노 서원이 필요합니다. 영성이란 매일 행하며 힘과 위안을 얻는 바탕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은 말씀이 일상이 되고 말씀으로 삶을 버터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믿음을 뜻하는 단어 '에무나'는 버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으로 버티려는 삶은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말씀이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능력이 생깁니다.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일상의 영성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세워지며 거룩한 두란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작용하며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나자, 성령이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적의 현상만을 모방하려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일종의 유행이나 주문처럼 사용하며 악귀를 쫓아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들의 가짜 신앙을 정확히 알아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으며 그들을 공격하여 알몸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단순히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개인의 세속적 행복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일시적인 희망을 주거나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기적의 최고의 목표는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관심이 없다면 기적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던진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소유한 믿음은 귀신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며,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단지 병마에서 건지거나 가난에서 구제하고, 기도를 통해 대학이나 취업 등 세속적 성공을 이루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기복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화목하게 되면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가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나아가 다

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가장 좋은 예는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했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 담을 넘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칭하며, 자신의 축복이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지난 인생은 사기꾼이자 약탈자로 살아온 허물투성이의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처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을 비는 자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실력이나 행실로는 복을 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을 때도 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자손을 축복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자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임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존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의 생존과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물이나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물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불이 삼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을 이루며,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